

**주요소식**

**청렴 방방곡곡 본청**

**경남교육청 청렴도 높이기 위한 방안 협의 “청렴은 다음이 없다”**

**조직문화 자체 진단 등 직원 의견수렴 교육정책관리자회의 운영  
사전활동, 본회의, 사후활동 3단계 전략적 회의로 청렴 문화 확산 노력**

경남교육청은 26일 본청 대강당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부서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5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남교육 구현을 위한 청렴도 높이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회의와 달리 △직원들의 내부토론을 거친 사전 다모임 △본 회의인 교육정책관리자 토론회의 결과 공유를 위한 기관 전체 다모임의 3단계 협의 과정을 거쳤다.

5월 초부터 2주간 본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담당별로 조직문화 진단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1단계 다모임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교육정책관리자회의를 운영했다.

감사관에서는 2021년 경남교육청 취약분야 청렴도 자체 조사 결과와 청렴도 제고 대책을 발제했으며 교육정책관리자는 기관별 다양한 청렴 활동 사례와 도민이 감동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정책관리자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3단계 교육기관별 다모임을 통해 공유해 청렴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남교육청은 설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수업 혁신으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이 가능했듯이 청렴 문화 확산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와 교육수요자의 행복을 높여 나갔으면 한다”며 “청렴은 다음이 없다. 바로 지금부터! 경남교육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게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교육감은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청렴’의 주요 덕목인 ‘약속’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청렴 방방곡곡 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놀자! 청렴놀이터!  
(곤양초 방문)**

‘교육장과 함께 하는 청렴놀이터’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도교육청에서 제작한 ‘수업 속 청렴 이야기’ 내용을 담은 맞춤형 청렴 강의를 시작으로 ‘청렴 약속나무 만들기’, ‘청렴핀버튼 만들기’ 및 ‘즉석 청렴 찰카’ 등 즐거운 청렴활동을 교육장과 함께 진행하였다.



**진주교육지원청,  
업체·학교 청렴 계약 랜선 만남은 처음이지?**

물품 및 공사업체와 학교 계약담당자 100명 간에 계약분야 개선방안을 주제로 「청렴 계약 랜선 만남 (LIVE)」으로 소통의 기회



**창원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청렴공감토크’ 열어**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직원 및 강사 의견 적극 청취



**거제교육지원청,  
새내기 공무원, 이순신장군의 청렴 정신 배우며 소통·공감 연수**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청렴캠페인을 시작으로 효충사, 승전탑 돌아보며 역사적 의미 통찰

## 청림극장

### 영화 「선생 김봉두」



영화 '선생 김봉두'를 소개합니다. '불량 선생' 김봉두가 아이들의 순수함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참 교사로 거듭나는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이들이 곧 스승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지 한 교사를 속물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영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릴게요. (봉투를 내밀며)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성의로 받아주세요.”  
“가영이가 누구를 닮아 예쁘냐 했더니 엄마를 꼭 닮았네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학생이든 학부모든 교사와 평가 관계로 직무관련성이 얽혀 있으니 단 10원도, 10원에 해당하는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겠지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선생 김봉두(배우 차승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 드라마 「블랙독」



드라마 '블랙독'을 소개합니다.교육의 현장으로만 인식했던 학교를 누군가의 직장으로 바라보고 그 세계를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내용 중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 잠시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생기부 시늬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담임과 교과선생님께서는 여름방학 안으로 무조건 1차적으로 생기부를 마무리해주시고요. 개학 후 학생, 학부모들이 생기부를 열람, 검토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보면 '당해 학년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열람'이 '수정 요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학생부 수정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영화 「공공의 적2」



2005년 당시 300만이 넘는 관객이 모일 정도로 호평을 받았던 '공공의 적2'를 소개합니다. 정의파 다혈질 검사와 명선학교 재단 이사장 차남인 한상우 간 대립 구도를 통해 사학의 비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명대사가 넘쳐나는 영화 속으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피뎀으로 부자 놀이하는 애들 때문에 좋은 부자들까지 숨죽이고 사는 거야. 착한 부자가 '나 부자다' 하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부자될 희망을 좀 가져보잖아.”

“저는 이렇게 구린내 풀풀 나는 사건, 이런 놈 하나 못 잡으면 더 이상 검사 생활 못한다고 봅니다. 쪽팔려서요.”

감독의 연출 의도가 검사(배우 설경구)의 입을 통해 드러난 셈인데요. 재단 이사장급인 한상우(배우 정준호)가 정관계(政官界) 인맥을 통해 비리를 일삼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요.

국민의 안전,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지켜주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된 데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4월 20일 개정 공포)

이로써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인 '안심번호사제(☎ 055-210-5203~4)'까지 운영하며,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합니다.